

민주, 광주서 새출발...지방선거 공천·혁신안 나올까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5·18묘지 참배·GGM 공장 방문
감사·반성 담긴 호남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광주를 찾아 20대 대선 참패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호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위는 지역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고,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지를 방문하면서 '호남에서의 새로운 출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15일 민주당은 "16일 오전 비대위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고, 민주이문 앞 앞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장소를 광주시당으로 옮겨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대위 회의를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메시지에는 호남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광주형일자리로 추진된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민주당이 빠짐 없이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이라면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호남민의 아낌없는 지지에 대한 감사와 반성의 의미로 광주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비대위는 광주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강원 등지를 돌며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의 광주 방문에서 구체적인 지방선거 혁신안과 대책 등이 논의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비대위 안팎에서 다양한 새

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권지용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이냐가 아주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현역 의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 패배 수습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기존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n번방 사건을 공문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활동가 박지현씨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여성인 초선 이소영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했다. 앞서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권지용 비대위원(남성)까지 포함하면 임시 지도부 8명 중 절반을 여성·청년으로 채웠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 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태진 비대위원은 "현역 지방선거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단계이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간담회를 하고, 광주 등지에서 진행되는 현장 비대위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혁신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항 등대마을을 방문해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원 절반 인선...관료·전문가·MB계 다수 포진

호남 출신 이용호 정무행정 간사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 9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앞서 발표한 기획조정분과 3명을 더하면 인수위원 24명 중 절반 인선이 완료된 셈이다.

윤 당선인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인수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관료와 전문가,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출신 기용이 눈에 띈다.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차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차관위원과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 수립을 주도해왔다.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호 전

대통령전략기획관 역시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MB계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인수위에서 외교통일안보 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었고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수석급인 기획관까지 역임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다.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 출신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1 분과 인수위원)를 비롯해 신성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경제1 분과 인수위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 등 학계 전문가들도 전면으로 포진했다.

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인 최정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 측이 추천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는 김성한 전 차관을 비롯해 이중

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 등 외교안보 분야 관료 출신 인사들이 적극 기용됐다.

경제 관료 출신의 추경호 의원(기획조정 분과 간사)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 법조계 출신의 유상범 의원(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 등 정치인들도 인수위에 포함됐다.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기용됐다. 인수위와 별개로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의장이 기용된 것도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나온 인수위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은 1명(박순애 교수)이다.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선이 남았다. 국민통합위원회나 코로나비상대책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위원회에는 인수위원이 투입되지 않는다. 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수위 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민주당” 대선 석패후 오히려 입당 러시

나흘만에 10만명 신청

3만8천여명 입당 완료

20대 여성 가입 많아

3·9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당원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0.73% 포인트차로 이재명 후보(전 경기지사)가 석패하면서 이른바 '지킴이(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성격의 당원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대선 직후인 10월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입당을 신청해 승인 받은 이들은 총 3만8851명이다. 각 사·도당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6만명 가량이다.

대선 직후 나흘 동안 약 10만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인데, 민주당 내 권리당원이 80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입당 러시'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성 및 연령에 따른 신규 당원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20대 여성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감 등의 영향으로 '이대녀'가 대선에서 이 전 지사에 물표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비대위 절반이 여성·청년으로 채워진 것에 더해 이번 신규당원 유입이 젠더 및 청년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8월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그해까지 운영하고 8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집무실 플랜B '국방부 청사'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광화문 정부청사 집무실-총리공관 관저' 마련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청사

집무실 카드가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에 한반도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

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아직 선택지에 있다"며 "장단점을 보고 있으며, 아직 어디로 갈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청사를 새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경호 우려라는 현실적 제약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청사나 외교부 청사와 비교해 주변에 높은 건물 없고 외부와 차단도 용이해 경호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220228-중-136035

첨단우리병원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임상진료교수”

김도연 원장 취임!

- ▶ 어깨/팔꿈치관절 질환
- ▶ 무릎관절 질환
- ▶ 엉덩이(고)관절 질환
- ▶ 발/발목관절 질환
- ▶ 손/손목관절 질환
- ▶ 정형외과(소아) 질환
- ▶ 골절외상

전)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임상진료교수
전)동아병원 정형외과 진료원장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